

#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어머니 양육행동 및 사회적 지원

##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조 교 수 김 지 현\*

수원과학대학교 아동보육과

조 교 수 한 준 아

Dept. of Child Studies and Education, Hanyang Cyber Univ.

Assistant Professor : Kim, Ji-Hyun

Dept. of Child Edu-Care, Suwon Science College

Assistant Professor : Han, Jun-Ah

---

###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he participants are 148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teachers from one elementary school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ere differences in maternal parenting behavior(warmth), teacher support, and internal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2) mothers's parenting behavior(warmth) and teachers' support explained children's overt problem behaviors; and (3) mothers' parenting behaviors(supervision) and friends' support explained children's internal problem behaviors. In conclusion,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subscale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s influencing overt problem behaviors and internal problem behaviors.

---

▲주요어(Key Words) : 어머니 양육행동(maternal parenting behavior), 문제행동(problem behaviors),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s)

### I. 서 론

최근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아동기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Han & Kim, 2011). 특히 아동기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행동은 청소년기에 심각하게 표출될 수 있으므로(Morita, Suzuki, & Kamoshita, 1990),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Kim & Kwon, 2010).

문제행동에는 아동이 일정기간동안 지능, 감각 또는 건강 요인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학습문제, 또래나 교사와의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정상적 조건 하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 우울하거나 불행한 기분, 또는 젖어 있는 경우 그리고 개인적 혹은 학교 관련 문제로 인한 신체적 증상, 통증 및 두려움 등의 행동들이 포함된다(Bower, 1969). Achenbach(1991)은 이러한 여러 유형의 문제행동들을 크게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분류하였다. 내면화 문제는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어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며, 우울, 불안, 위축을 비롯한 신체적 증상 및 주의집중

---

\* 주저자 · 교신저자 : 김지현(E-mail : jihyunkim@hycu.ac.kr)

문제 등을 포함한다. 반면에 외현화 문제는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역제가 결여되어 충분히 통제되지 못한 행동으로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행동 등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분류에 기초하여 국내에서도 문제행동을 불안 행동, 수줍음, 사회적 위축이나 미성숙한 행동과 같은 내면화 문제와 공격성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로 분류하고 있다(Kim & Kim,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분류에 기초하여 문제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의 하나는 부모관련 변인이다.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중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모의 거부, 처벌, 강압적 명령, 무관심,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에 강력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Chung & Chun, 2005; Chung & Kim, 2004; Doh et al., 2005; Kim, Kwon, & Jean, 2006; Yi, Lee, & Min, 2006).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달라짐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Park, 1996)와 부모의 낮은 애정과 과잉간섭(Moon & Oh, 2002)은 자녀의 내면화 문제와 관계가 있었다. 반면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신체적 체벌(Kim & Doh, 2001), 아버지의 낮은 애정과 성취지향적 태도(Kim & Yoo, 2002), 강압적 양육행동(Park, 2002), 거부적, 통제적 태도(Park, 1996)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와 관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처럼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 및 내면화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와 더불어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Aunola & Nurmi, 2005; Pettit, Bates, & Dodge, 1997). Pettit et al.(1997)의 연구에서는 학령전기부터 학령기까지 지속된 7년간의 중단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학령초기는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수행에 영향을 주고 또래관계에서도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Aunola and Nurmi(2005)는 어머니가 애정적이면서 행동의 통제를 많이 할 때 외현화 문제가 적게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회정서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서 본 연구는 양육행동 중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어떤 측면이 문제행동을 줄이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도와 줄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으로 대표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온정과 함께 자녀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관리감독하는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문제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은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이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 등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아동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타인에는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등이 있다(DeRosier & Kupersmidt, 1991; Furman & Buhrmester, 1985).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의 발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면 심리적 부적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Cohen & Wills, 1983; Mitchell, 1983). 아동은 부모와 가족을 비롯하여 친구와 교사 등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에게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교사의 영향력이 증가하므로, 학교 환경에서 교사와 친구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Cho, Lee, & Han, 2005).

유아기 동안에는 가정이 주된 환경이었지만, 아동기에 접어들면서 학교입학과 더불어 교사와 친구 등이 아동의 생활에서 중요한 타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은 점차 확대된다고 하였다(Feiring & Lewis, 1989; Piant et al., 2002).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되며, 특히 교사는 아동의 지적 성숙은 물론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지원은 친구이다. 유아기에 비교적 약하고 일시적이었던 또래관계는 아동기에 접어들어 상호작용이 급증하고 긴밀해지면서 친구관계로 발전해간다(Lee & Lee, 2007). 그리고 아동은 친구관계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사회적 기술, 적응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중 교사지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교사의 지원을 많이 받는 아동과 청소년은 사교성, 유능성 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Chung, 2005), Murray, Kelly and Gregory(2007)는 교사의 지원 및 학생과의 관계가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Kang and Lee(1992)는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가정적응과 학업적 적응상의 문제가 교사지원 수준에 의해 감소된다고 하였고, Han and Yoo(1996)도 아동의 공격행동과 불안 행동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교사지원에 의해 완화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이 교사지원에 의해 조절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친구지원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 지원이 아동의 적응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Turner(1981)는 친구 지원이 결여되었을 때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Kim(1994)은 아동들이 가족, 친구, 선생님과 같은 주위 사람들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정서적, 정보적, 자존감 지원행동을 주위 사람들이 아동에게 많이 수행할수록, 그리고 아동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지원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hung(1998)은 가족지원보다는 친구와 교사지원이 아동의 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의 영향력보다는 친구 및 교사의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보면, 사회적 지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 사회적 지원을 교사지원과 친구지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외현화 문제행동 및 내면화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따라서 교사지원과 친구지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지원이 외현화 문제행동 및 내면화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아동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개인내 변인으로 많은 연구들이 살펴본 변인으로 아동의 성을 고려할 수 있다. 아동의 성에 따라 문제행동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아는 과잉행동, 공격행동,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여아는 우울, 불안, 두려움, 걱정, 퇴행, 강박행동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Doh, 2001). 그러나 여아가 남아보다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Park, 1996), 그리고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들도(Chung & Kim, 2004; Kwon & Lee, 1999) 있어 성에 따라 문제행동, 특히 내면화 문제행동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부모는 동성의 자녀보다 이성의 자녀를 더 관대하게 다룬다고 보고하고 있다(Baumrind, 1971). 자녀의 입장에서는 남아보다는 여아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Armentrout & Burger, 1972; Chung & Kim, 2004). 사회적 지원의 경우 성에 따라 교사지원과 친구지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지원망이 더 넓고 교사지원 및 친구지원에 대한 지각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Dubow & Ulman, 1989; Piant et al., 200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문제행동은 어

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원과 관련이 있으며 선행연구들은 문제행동과 각각 변인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문제행동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를 돕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온정, 관리감독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과 사회적 지원의 경우 문제행동을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을 구분하여 교사지원 및 친구지원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사회적 지원을 교사지원과 친구지원으로 구분하여 내면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성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는 특히 내면화 문제행동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성에 따라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온정, 관리감독의 어머니 양육행동과 교사 지원 및 친구지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지원의 각 변인이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도와주고자 하는 교사 및 부모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갖고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원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원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를 임의 표집하여 초등학교 5학년 5개 학급 총 148명(남아 66명과 여아 8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학령기 후기 아동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생각을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령기 후기의 아동이 청소년기의 아동보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가정에서

학교 및 친구로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Feiring & Lewis, 1989; Moon, 2001).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 양육행동, 사회적 지원 그리고 문제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원은 아동들이 평정하였고, 아동의 문제행동은 교사가 평정하였다.

### 1)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Han(2008)이 개발한 '부모양육행동'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온정 9문항과 관리·감독 6문항의 2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정은 부모가 아동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기, 아동에 대한 수용, 필요한 도움 제공하기, 자율성에 대한 격려 등과 같이 애정적이고 따뜻한 행동을 의미하며, 관리·감독은 부모가 일관성 있게 아동의 일상생활의 제한을 정해주고 아동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온정의 경우 '엄마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주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고, 관리·감독의 경우 '엄마는 내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해 두고서 지키게 하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다. 아동은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온정이 9~36점이며, 관리·감독이 6~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과 관리·감독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아동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는 온정이 .84, 관리·감독이 .75이었다.

### 2) 사회적 지원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 (1985)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지원(8문항)', '교사지원(8문항)', '친구지원(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지원과 친구지원에 관한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교사지원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선생님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며, 친구지원의 경우 '나에게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는 교사지원이 .85, 친구지원이 .84이었다.

### 3)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Teacher-Child Rating

Scale(T-CRS: Hightower, et al., 1986)을 Chung(2002)이 한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한 '한국관 교사용-아동평정척도' 중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하위 영역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에는 '외현화 문제(5문항)', '수줍음·불안(6문항)', 그리고 '학습문제(7문항)'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와 수줍음·불안에 관한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외현화 문제'는 공격적이거나 산만한 행동에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며, '수줍음·불안'은 비사회적이거나 우울, 정서적 문제에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정하는 대상을 교사로 선정하였는데, 아동의 학교 적응에 있어 교사는 중요한 성인이기 때문이다(Sim, 2003). 교사는 각 아동에 대해 문항별로 1점인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인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하위 영역별 Cronbach  $\alpha$ 는 외현화 문제가 .81, 수줍음·불안이 .78이었다.

## 2.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서울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 5학년 5개 학급의 아동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아동용 질문지는 연구자가 각 학급을 방문하여 실시하였고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5~30분 이었다. 교사용 질문지는 아동용 질문지를 실시한 후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였다. 교사용 질문지는 아동용 질문지를 실시한 1주일 후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총 2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것은 183부였고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48부의 질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각 측정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각 변인들의 점수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성을 통제하고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

동의 평균 점수를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온정이 25.1점, 관리·감독이 14.3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를 문항평균 점수로 나타내면 온정이 28점, 관리·감독이 24점으로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중 2점인 '때때로 그렇다'와 3점인 '자주 그렇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중간 수준의 관리·감독과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온정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원의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교사지원이 21.6점, 친구지원이 27.0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를 문항 평균으로 나타내면 교사지원이 2.7점, 친구지원이 3.4점으로 이는 4점 척도 중 3점 '그렇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동은 교사와 친구로부터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문제행동의 평균점수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외현화 문제는 9.4점, 수줍음·불안의 내면화문제는 12.1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를 문항 평균 점수로 나타내면 외현화 문제는 1.9점, 수줍음·불안의 내면화 문제는 2.0점으로 4점 척도 중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와 2점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대상 아동이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와 수줍음·불안의 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 사회적 지원 그리고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1> 참조). 먼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 중 온정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t = -3.00, p < .01$ ). 즉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행동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교사지원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t = -2.05, p < .05$ ). 즉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의 지원을 더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친구지원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행동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외현화 문제행동( $t = 4.21, p < .001$ )에서 성차가 나타났지만 수줍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성을 통제하고 부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values of Variables by Children's Gender

*N* = 148

Variables	Boys	Girls	Total	<i>t</i>	
	( <i>n</i> =66)	( <i>n</i> =82)	( <i>N</i> =148)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Warmth	23.3(6.7)	26.5(6.2)	25.1(6.6)	-3.00**
	Supervision	13.8(4.1)	14.7(3.9)	14.3(4.0)	-1.26
Social Support	Teachers Support	20.7(4.9)	22.4(4.9)	21.6(5.0)	-2.05*
	Friends support	26.8(3.9)	27.2(4.9)	27.0(4.6)	-.48
Problem Behaviors	Overt Problem Behaviors	10.2(2.6)	8.7(2.4)	9.4(2.6)	3.58***
	Internal Problem Behaviors	12.5(2.5)	11.8(2.6)	12.1(2.6)	1.55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2. Correlation among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Social Supports, and Problem Behaviors

*N* = 148

	1	2	3	4	5	6
1	1.00					
2	.47***	1.00				
3	.27**	.13	1.00			
4	.27**	.17*	.33***	1.00		
5	-.28**	-.15	-.35***	-.09	1.00	
6	-.25**	-.27**	-.19*	-.29***	.17*	1.00

\* $p < .05$ , \*\* $p < .01$ , \*\*\* $p < .001$

1. Warmth, 2. Supervision, 3. Teacher Support, 4. Friends support, 5. Overt Problem Behaviors, 6. Internal Problem Behaviors

앞선 분석에서 종속변인인 문제행동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이후 분석에서는 모두 성을 통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제행동 하위 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외현화 문제의 경우 어머니 양육행동 중 온정과 부적상관을( $r = -.28, p < .01$ ), 교사지원과는 부적상관을( $r = -.35, p < .001$ ) 보였다. 그러나 친구지원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외현화 문제를 적게 보이며, 교사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외현화 문제를 적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수줍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해동의 경우 온정과 부적상관을( $r = -.25, p < .01$ ), 관리·감독과 부적상관을( $r = -.27, p < .01$ ), 교사지원과 부적상관을( $r = -.19, p < .05$ ), 친구지원과 부적상관을( $r = -.29, p < .001$ )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관리감독을 잘 하면 수줍음과 불안 행동을 적게 보이고 교사지원과 친구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수줍음과 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양육행동 중 온정은 교사지원( $r = .27, p < .01$ )과 친구지원( $r = .27, p < .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 양육행동 중 관리·감독은 친구지원( $r = .17, p < .05$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 교사지원과 친구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어머니가 관리 감독을 잘 하는 경우 친구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원의 영향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원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of Overt Problem Behaviors  
N = 148

Variables	Overt Problem Behaviors	
	$\beta$	
Warmth	-.19*	
Supervision	-.03	
Teacher Supports	-.31***	
Friends Supports	.07	
$R^2$	.23	
F	8.60***	

\* $p < .01$ , \*\*\* $p < .001$

1)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원의 영향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 독립 변인간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독립변인의 공차(tolerance)와 상승변량(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산출하였는데 산출된 공차와 상승변량이 1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들이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어서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현화 문제행동을 종속 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외현화 문제행동 변량의 23%를 설명하였으며, 투입된변인 중 온정적 양육행동( $\beta = -.19$ )과 교사지원( $\beta = -.31$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교사의 지원이 많을수록 교사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보고하였음을 의미한다.

2) 아동의 수줍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원의 영향

아동의 수줍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 독립 변인간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독립변인의 공차(tolerance)와 상승변량(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산출하였는데 산출된 공차와 상승변량이 1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들이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어서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f Internal Problem Behaviors  
N = 148

Variables	Internal Problem Behaviors	
	$\beta$	
Warmth	-.09	
Supervision	-.19*	
Teacher Supports	-.07	
Friends Supports	-.21*	
$R^2$	.16	
F	5.41***	

\* $p < .05$ , \*\*\* $p < .001$

수줍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줍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종속 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수줍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 변량의 16%를 설명하였으며, 투입된 변인 중 관리·감독적 양육행동( $\beta = -.19$ )과 친구지원( $\beta = -.21$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관리·감독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친구의 지원이 많을수록 교사는 아동의 수줍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보고하였음을 의미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어머니 양육행동, 사회적 지원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 중 온정에서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Armentrout & Burger, 1972; Chung & Kim, 2004; Moon and Oh, 2002).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아동의 행동이 어머니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성에 따라 여아에게는 친절하고 애정적이고 협동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기를 기대하고, 남아에게는 지배적이고 자기 주장적이며, 독립적이고 경쟁적이 되기를 기대함으로써(Chung & Kim, 2004), 어머니가 딸을 더 온정, 수용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비행과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로부터 어머니가 남아에게 덜 온정, 수용적일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구지원의 경우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성차를 보고하였는데(Cho et al., 2005; de Anda et al., 2000; Dubow & Ulman, 1989; Han & Kim, 2011),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지원량이 더 넓고 교사지원 및 친구지원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이 더 높다는 것이다(Dubow & Ulman, 1989; Piant et al., 2002). 문

제행동의 경우 외현화 문제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hung & Kim 2004; Han & Yoo, 1996; Hightower et al., 1986; Kim & Doh, 2001; Lahey, et al., 2000). 또한 수줍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경우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내면화 문제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는 선행연구들(Chung & Kim, 2004; Hightower et al., 1986; Kim & Kwon, 2010)과는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여아가 남아보다 내면화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들(Han & Yoo, 1996; Kim & Doh, 2001; Lahey et al., 2000)과는 상치되는 결과이다.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화 문제를 많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남녀의 생물학적 요인의 차이와 사회화 과정의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외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Tannen, 1990).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는 남아에게 용감하고 남자다운 행동을 격려하며 훈육시에도 남아에게 신체적인 체벌 혹은 소리치면서 훈육을 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언어적이고 설득적인 훈육을 함에 따라 남아의 외현화 문제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성에 따른 내면화 문제의 차이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여아가 남아보다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Han & Yoo, 1996; Kim & Doh, 2001; Lahey et al., 2000; Park, 1996), 그리고 성차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Chung & Kim, 2004; Kwon & Lee, 1999)들이 있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Chung and Kim(2004)은 문제행동에 대한 자료원의 차이와 사회적 바람직성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Achenbach, McConoughly, and Howell(1987)은 내면화 문제의 경우 아동 자신이 더 정확하게 평정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내면화 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 자신이 완벽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본인의 행동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Dadds, Perrin, & Yule, 1997).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동에게 의미 있는 타인인 교사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정한 본 연구에서는 수줍음·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없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원을 통해 내면화 문제행동의 자료를 수집하고, 계층 및 연령과 같은 변인도 함께 고려하여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교사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내면화 문

제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관리감독적 양육행동과 친구지원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교사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며, 어머니가 관리감독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친구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수줍음·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살펴본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 중에서는 문제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양육행동의 하위 영역이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하였다(Aunola & Nurmi, 2005; Eisenberg, et al., 2005; Lee & Chung, 2006). Lee and Chung(2006)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내면화 문제와 관련이 있었고, 어머니의 수용적, 긍정적 양육행동은 내면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Eisenberg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9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한 종단연구에서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외현화 문제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Aunola and Nurmi (2005)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3년간 종단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어머니가 애정적이면서 행동의 통제를 많이 할 때 외현화 문제가 적게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 양육행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는 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긍정적 양육행동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본 경우가 많아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온정적 양육행동과 관리 감독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여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온정적 양육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리감독적 양육행동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관리감독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일관성 있게 아동의 일상생활의 제한을 정해 주고 아동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양육행동을 의미하는데 어머니가 아동에게 불분명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관리감독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동의 수줍음,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긍정적인 차원을 보다 세분화해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연관 지어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문제행동과 사회적 지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교사지원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 친구지원은

수줍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원이 주로 아동의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DuBois, et al., 1992; Lee & Lee, 2007; Yang & Lim, 1998). 친구 및 교사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원이 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교사로부터 높은 지원을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친구지원과 교사지원이 외현화 문제행동 및 내면화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들은 친구지원과 내면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Koh, Kim, & Noh, 2000), 교사지원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Han & Kim, 201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지만 외현화 문제행동 중 대표적인 행동으로 비행행동을, 내면화 문제행동 중 대표적인 행동으로 우울을 선택하여 이러한 행동들과 교사지원 및 친구지원의 관계를 살펴본 Yang and Lim(1998)의 연구에 따르면 내면화 문제행동은 교사지원 및 친구지원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교사지원과 부적상관이 있었으나 친구지원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Yang and Lim(1998)은 친구지원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친구지원이 높게 나타난 집단의 경우 친구 중에 비행 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추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비행친구의 사회적 지원이 비행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친구 지원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친구 지원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의 경우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Yang and Lim(1998)의 연구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친구지원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현화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교사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교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일선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교사와 학생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줍음·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의 경우 친구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또래 관계가 중요시 되는 아동기에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중류층이 거주하는 1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속연



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연령과 그들이 속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지원의 경우 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있어(Min, Yi, & Lee, 2005; Jung & Han, 2007),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가 다른 계층(예, 저소득층)에도 적용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수줍음·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는 아동 스스로 평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보고가 있어(Achenbach, et al., 1987), 후속 연구에서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의 평정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의 보고 및 관찰을 통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의 자료 수집을 통해 내면화문제에서 성차가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인들, 예를 들어 아동의 정서조절, 자기통제력 등의 변인들을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 양육행동, 사회적 지원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인 온정적 양육행동과 관리감독적 양육행동으로 나누고, 사회적 지원을 친구지원과 교사지원으로 나누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외현적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교사지원이, 내면화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어머니의 관리감독적 양육행동과 친구지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REFERENCE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rchenbach, T. M., McConoughy, S. H., & Howell, C. T.(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Armentrout, J. A., Burger, G. K.(1972).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t five grade levels. *Developmental Psychology*, 7(1), 44-48.

Aunola, K., & Nurmi, J. E.(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 1-103.

Bower, E. M.(1969). *Early identification of emotionally handicapped children*(2nd ed.).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Cho, B. H., Lee, J. S., & Han, S. Y.(2005). The relationships among home environment,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Korean-Chinese children in Yanbia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43(3), 91-104.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01(3), 393-403.

Cohen, F., & Wills, T. A.(1983).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Chung, H. H.(200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the teacher-child rating scal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2), 73-88.

Chung, S. I.(1998). *A study on daily stress and adjustment depending on children's social support*. Unpublishe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Chung, S. M.(2005). *The effect of social supports and self concept perceived by children on the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Chung, M. J., & Chun, Y. J.(2005). Effects of the father's experiences from his family of origi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aring behaviors on his child's behavioral problems as a function of the child's sex.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2), 41-55.

Chung, M. J., & Kim, M, J.(2004).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their perceptions of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5), 11-27.

Dadds, M. R., Perrin, S., & Yule, W.(1997). Social desirability and self-reported anxiety in children: An analysis of the RCMAS lie sca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4), 311-317.

de Anda, D., Baroni, S., Buchwald, L., Morgan, J., Ow, J., Gold, J. S., & Weiss, R.(2000). Stress, stressors and cop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Children*

- and Youth Services Review, 22, 441-464.
- DeRosier, M. E., & Kupersmidt, J. B.(1991). Costa Rican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56-662.
- Doh, H. S., Kim, M. J., Park, B. K., & Hwang, Y. E. (2005). The relations of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children to children's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185-195.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Dubow, E. F., & Ul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t, C., Fabes, R. A., Liew, J.(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three 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5), 1055-1171.
- Feiring, C., & Lewis, M.(1989). The social networks of girls and boys from early through middle childhood. In D. Belle(Eds.), *Children's social networks on social supports* (pp. 119-150). N.Y.: Wiley.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Han, J. A.(2008).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divorced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Han, J. A., & Kim J. H.(2011).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social support on gender-specific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3), 11-21.
- Han, M. H., & Yoo, A. J.(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1), 173-188.
-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Denver: University of Denver.
- Hightower, A. D., Work, W., Cowen, E., Lotyczewski, B., Spinell, A., Guare, J., & Rohrbeck, C.(1986). The teacher-child rating scale: A brief objective measure of elementary children's school problem behaviors and competencies. *School Psychology Review, 15*, 339-409.
- Jung, J. Y., & Han, E, G.(2007).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low-income divorced family's children on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3), 491-504.
- Kang, S. H., & Lee, J. Y.(1992). Stress-buffer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in the adjustment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2), 175-188.
- Koh, Y. J., Kim, Y. S., & Noh, J. S.(2000). Contribution of Behavioral Disturbance,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to the self-perceived social competence in Korean elementary-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Development, 13*(2), 65-78.
- Kim, M. S.(1994).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of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M. J., & Doh, H. S.(2001).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on aggression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2), 149-166.
- Kim, S. H., & Kim, K. Y(1999). The causal relationship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the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7*(1), 155-166.
- Kim, J. H., & Kwon, Y. H.(2010).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gender-specific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3), 1-13.
- Kim, W. K., Kwon, H. K., & Jeon, J. A.(2006).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depression, self efficacy, and problem solv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3), 67-79.
- Kim, E. Y., & Yoo, G. H.(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nd the fathers' attitudes of child rearing.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5*(1), 33-43.
- Kwon, Y. O., & Lee, J. D.(1999).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2), 115-133.
- Lahey, B. B., Goodman, S. H., Schwab-Stone, M., Walman, I. D., & Bird, H.(2000).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oppositional behavior and conduct pro-

- blems: A cross-sectional household study of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488-503.
- Lee, G. S., & Chung, H. H.(2006).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attitude on peer relationship in early school age: Mediated by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perceived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1), 1-17.
- Lee, J. M., & Lee, Y. H.(2007).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conflict, maternal behavior, an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33-58.
- Min, M. H., Yi, S. H., & Lee, O. K.(2005).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n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from divorced and non-divorced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11), 109-125.
- Mitchell, R. E.(1983).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433-448.
- Moon, M. Y.(2001).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rising attitude on children's behavior of maladjustment*. Unpublished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Moon, K. J., & Oh, K. J.(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and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1), 29-43.
- Morita, H., Suzuki, M., & Kamoshita, S.(1990). Screening measures for detecting psychiatric disorders in Japanese second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31(4), 603-617.
- Murray, C., Kelly, M., & Gregory, A. W.(2007). Child and teacher report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Concordance of perspectives and associations with school adjustment in urban kindergarten classroom.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49-61.
- Park, S. Y.(2002). Fathering, son's aggression, and the transmission of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5), 35-50.
- Park, Y. M.(1996). The relation between the rearing attitudes of the mother whose children late for school and child's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5(1), 49-64.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 Pianta, R. C., La Paro, K. M., Payne, C., Cox, M. J., & Bradley, R.(2002). The relationship of kindergarten classroom environment to teacher, family and school characteristics and child outcomes. *Elementary School Journal*, 102, 225-238.
- Sim, H. O.(2003). Children's bullying, victimization and teacher's report of problem behaviors and competenc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2), 79-82.
- Tannen, D.(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N.Y.: Ballantine Books.
- Turner, R. J.(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Social Behavior*, 22, 357-367.
- Yang, D. K., & Lim, Y. S.(1998).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er on the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4(1), 55-74.
- Yi, S. H., Lee, O. K., Min, M. H.(2006). The effects of children's gender,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s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1), 181-192.

□ 접수 일 : 2012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12년 07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9월 26일